

쇼류지 절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806년, 진언종의 개조인 구카이(774~835년)가 자신이 불교를 수학했던 중국의 사원 이름을 따라 쇼류지(靑龍寺) 절을 건립했습니다. 962년에 극심한 가뭄이 덮쳤을 때 천황은 주지인 센칸(918~984년)에게 일주일 동안 비를 기원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려 물을 다스리는 용신의 의지를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의미에서 한자를 바꾸어 절 이름을 '쇼류지(勝龍寺)'라고 했습니다.

본당과 경내

입구에 걸쳐 있는 용 모양의 금줄은 용이 서쪽 방향에 있는 니시야마 산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줄은 지역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만듦새에 따라 한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합니다. 쇼류지 절의 본존은 자비의 보살인 십일면관음보살 입상입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공개 기간 외에는 교토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보통 공개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내에는 개조 구카이가 일본 전국을 행각하던 때의 모습이나 치매를 예방한다는 보케후지 관세음, 칠복신의 한 사람인 호테이, 그리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며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빈두로존자 등의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내의 작은 가스가 신사에는 쇼류지 지구의 수호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술과 커뮤니티와의 관계

쇼류지 절은 종이를 복잡하게 오려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리에'로 알려져 있으며, 기리에로 된 고슈인(참배를 증명하는 손으로 쓴 증서), 부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의 직원이 진행하는 기리에 워크숍과 요가 클래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예약제).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달 두 번째 일요일에는 '호테이 시장'을 열어 근린 주민이 직접 만든 식품, 공예품, 친환경적인 상품을 판매하며, 뮤지션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도 개최됩니다.